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정답 및 해설

■ [공통: 독서·문학]

01. ①	02. ⑤	03. ④	04. ③	05. ②	06. ①	07. ②	08. ⑤	09. ④	10. ②
11. ③	12. ⑤	13. ⑤	14. ⑤	15. ④	16. ③	17. ①	18. ①	19. ②	20. ①
21. ③	22. ①	23. ③	24. ⑤	25. ④	26. ②	27. ②	28. ③	29. ③	30. ④
31. ⑤	32. ⑤	33. ⑤	34. ④						

[1~3] 독서

[1~3] 독서 이론, 'SQ3R 읽기 전략'

지문해설 : 이 글은 '학습을 위한 읽기'의 대표 전략인 SQ3R의 구성과 원리를 설명하고, 이를 확장한 읽기 전략들을 소개하고 있다. SQ3R은 '훑어보기', '질문하기', '읽기', '암송하기', '재검토하기'의 다섯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독자가 글의 핵심 내용을 예측하고 질문의 답을 찾으며 읽도록 하여 내용 이해와 기억을 돕는다. 나아가 SQ3R에 '관점 바꾸기'와 '숙고하기'를 추가한 확장 전략을 활용하면 글을 더 분석적이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주제] 학습을 위한 읽기 전략인 SQ3R의 구성과 이를 확장한 읽기 전략의 특징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서 '숙고하기'는 글을 읽은 뒤에 자신의 배경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숙고하기'는 읽을 글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활동이 아니라, 글을 읽은 후 자신의 배경지식과 글에서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를 심화하는 활동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1문단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는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라고 하였고, '학습을 위한 읽기'의 대표적인 읽기 전략으로는 SQ3R이 있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학습을 위한 읽기'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목적의 읽기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기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④ 2문단에 따르면, SQ3R의 마지막 활동인 '재검토하기'는 글의 전체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고, 읽은 내용을 재검토하는 활동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관점 바꾸기'는 독자가 저자의 입장에서 글의 순서나 내용 전달 방법 등을 생각해 보며 읽는 활동이다. 이처럼 저자의 입장에서 글을 읽는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 내용을 분석적으로 읽을 수 있다.

2.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의 예로 지문에 제시된 것은 '관점 바꾸기'와 '숙고하기'이다. '관점 바꾸기'는 독자가 저자의 입장에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글의 순서

를 짤 것인지, 어떤 내용 전달 방법을 활용할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며 읽는 활동이다. 글의 내용 중 어떤 내용을 첫머리에 배치하면 좋을지 저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읽는 것은 '관점 바꾸기'의 예로 볼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글을 읽은 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장을 되뇌어 보는 것은 기존 SQ3R의 활동인 '암송하기'의 예에 해당한다. ② 읽기 전에 만든 질문에 대해 글에서 답을 찾아보며 읽는 것은 기존 SQ3R의 활동인 '읽기'의 예에 해당한다. ③ 글의 목차를 보며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예측해 보는 것은 기존 SQ3R의 활동인 '훑어보기'의 예에 해당한다. ④ 4문단에서 '관점 바꾸기'는 글의 내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입장에서 글의 순서나 내용 전달 방법을 생각해 보며 읽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또한 '숙고하기'는 글을 읽은 뒤 자신의 배경지식과 이해한 내용을 연결하여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관점 바꾸기'와 '숙고하기'는 모두 독자의 능동적 읽기를 지향하므로, 저자가 의도한 대로 수동적인 입장에서 글의 내용을 정리하며 읽는 것은 ㉠의 예로 보기 어렵다.

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보기>의 C그룹은 개념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받아 이를 활용하여 글을 읽었다. 3문단에서 질문하기의 효과는 타인이 질문을 제공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질문을 활용하여 읽으면 독자의 능동성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C그룹에 독자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글을 읽도록 했다면 독자의 능동성은 질문을 제공받았을 때와 유사한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독자는 '훑어보기'를 통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경지식을 활성화한다. <보기>에서 A그룹은 제목이나 요약문을 훑어보는 방법을 적용하여 글을 읽었으므로, A그룹이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데 제목이나 요약문이 활용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독자는 '훑어보기'를 통해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A그룹은 훑어보기를 적용하여 읽었고, B그룹보다 읽는 데 걸린 시간이 짧았으므로, A그룹은 훑어보기를 통해 글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져 읽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읽는 과정에 독자가 질문을 활용하면, 답을 찾으며 읽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더 잘 선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C그룹에 제공된 질문은 개념을 선별하고 정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C그룹이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읽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C그룹은 질문을 활용하여 글을 읽었고 2주 후 기억 정도가 D그룹보다 우수했으므로, 이는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내용에 집중하여 읽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4~9] 독서

[4~9] 주제 통합, '(가)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양반들의 다양한 시각 / (나) 19세기 말 민권에 대한 논의'

지문해설 : (가)는 왜란과 호란 이후 노비의 수가 감소하고 양인과 노비의 신분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나타난 노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양반들은 노비에 대한 글을 통해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며 미안한 심경을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 이와 달리 실학자 이익은 조명(造命)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여 노비도 자신의 노력으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제] 양란 이후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인식 변화와 이익의 견해

지문해설 : (나)는 19세기 말부터 서구의 기본권 사상이 알려지며 구체화된 민권에 대한 논의를 설명하고 있다. 급진 개화파인 유길준과 박영효는 법을 통해 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김윤식을 비롯한 온건 개화파는 민(民)의 평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차별을 정당화하는 양면적 태도를 보였다. 개화파의 주장은 갑오개혁의 신분제 폐지라는 법제상 조치로 이어졌지만 사회적 차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제 강점기에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으로 위축되었지만, 이후의 인권 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주제] 19세기 말 이후 구체화된 민권에 대한 논의의 전개 과정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는 조선 시대 노비제에 대한 실학자 이익의 견해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나)는 급진 개화파와 온건 개화파의 주장, 그리고 개화파의 주장이 신분제 폐지로 이어진 후 일제 강점기의 형평 운동에 이르기까지 민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을 서술하였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이익 외에 노비제를 비판한 학자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에는 신분제가 폐지된 뒤에도 노비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어, 이에 저항하는 형평 운동이 전개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노비제 폐지로 인해 발생한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없다. ② (가)에는 노비의 매매와 세습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노비가 겪는 불합리한 사회 현실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나)에는 신분 차별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 국가 정책에

대한 개화파들의 찬반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가)에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여러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나)에는 민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된 역사적 흐름이 제시되어 있을 뿐, 민권 개혁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가)에는 양반과 노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한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반면 (나)에는 유길준이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민에 주목하였다는 내용, 박영효가 민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권도 위태롭다고 보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통해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한 민권 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다.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은 주로 노비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행적을 기록한 것인데, 여기에는 노비에 대한 양반들의 인식 변화가 구체화되어 있을 뿐이다. 노비와 양인의 신분 격차가 줄어들면서 노비들이 갖게 된 인식이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2문단에서 양반들은 충성스러운 노비를 충(忠)이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투사하여 칭송하였다고 했다. ③ (가)의 2문단에서 노비를 작고 연약한 존재로 형상화한 시선은 주인이 노비를 대하는 온정적 차원에 머물렀다고 했다. ④ (가)의 2문단에서 빈한한 주인을 위해 희생하는 노비의 애환에 관심을 두면서 노비에 대한 미안한 심경은 드러냈지만 신분 질서를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양반들이 정면에서 문제 삼지 않은 신분 질서는 노비가 애환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다. ⑤ (가)의 2문단에서 노비의 의연한 행동과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노비의 불평등한 여건과 처지는 거론하지 않았다고 했다.

6.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는 신분이 세습되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재주와 덕행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통해 ㉮가 인간에 대한 차별적 의식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는 민을 무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가 ㉯에 대해 인간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는 민을 무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교육받지 않으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가 교육의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③ ㉯는 근대 국민 국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존재로 민에 주목하였으며, 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가 국가의 기본 체제를 제시하지 않고 개혁을 논의하였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④ ㉮는 국가의 역할은 조명이 가능한 최소한의 기반을 보장해 주고 결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여

개인의 발전 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⑤ ㉮는 천명(天命)과 성명(星命)을 인간이 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자연 이치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자연적 이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7. 핵심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나)의 4문단에서 차별받던 백정들의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형평 운동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이루려는 인권 운동이자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공동체 운동의 성격을 가졌다고 했다. 이를 통해 형평 운동이 백정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과 함께 형평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4문단에서 형평 운동의 도화선이 교육 차별이었던 만큼,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다고 했다. 따라서 형평 운동에서 개인의 소양에 따라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③ 형평 운동의 도화선은 교육 차별로, 사회적 대우를 받으려면 소양을 갖춰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교육 활동이 펼쳐졌으며, 그 회원들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제도화하고자 분투하였다고 했다. 따라서 형평 운동은 백정들이 처한 경제적 불평등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형평 운동은 내부 분열과 갈등, 일제의 억압이 이어지면서 위축되었고, 1935년에 형평사가 대동사로 개칭되면서 운동 본래의 성격을 잃었다고 했다. ⑤ 형평 운동은 일제 강점기에도 신분 차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일제의 억압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형평사가 조직되어 시작된 형평 운동은 경제적 부를 쌓은 백정들과 사회 운동가들이 결합하여 본격화되었다고 했으므로, 사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8. 다른 견해와의 비교

정답해설 : (가)의 이익은 노비의 매매와 세습을 금지하면 노비가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이익의 주장은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기>의 노예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 노예 출신 작가의 성취는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사회 제도의 변화를 위한 능동적인 행위의 당위성과 결부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가 본래부터 심사숙고 능력이 없다고 보았고, (나)의 김윤식은 인간은 타고난 능력에 따라 귀천이 생기고 이에 따라 부림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두 주장이 모두 인간의 타고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박영효는 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을 통해서만 존재 가능하고, 법을 지킬 때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사회의 공리를 극대화하지 않는 법률의 근본 개혁을 촉구한 주장과 (나)의 박영효의 주장이 모두 인간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조선 시대의 노비는 주인이 상속·매매할 수 있는 물적 성격을 지녔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의 식민 지배에 따른 노예 무역의 대상이었던 노예와 (가)의 조선 시대의 노비가 모두, 소유주의 뜻에 따라 매매될 수 있는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의 독립 협회는 자유와 평등은 하늘이 준 권리임을 근거로 노비 소유와 매매를 맹렬히 비판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노예들의 빼앗긴 자유를 회복시키자는 주장과 (나)의 독립 협회의 주장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두면서'는 문맥상 '생각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제시된 문장 중에서 '나는 ~ 친구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의 '두고'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쓰인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이 문장에서 '두고'는 '어떤 상황이나 상태 속에 놓다.'의 의미로 쓰였다. ② 이 문장에서 '두고'는 '직책이나 조직, 기구 따위를 설치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이 문장에서 '두고'는 '어떤 사람을 가족이나 친인척으로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이 문장에서 '두고'는 '행위의 준거점, 목표, 근거 따위를 설정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10~13] 독서

[10~13] 사회, '온라인 정보 비대칭 상황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

지문해설 : 이 글은 현실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둘러싼 논쟁을 다루고 있다. 완전경쟁시장의 가정과 달리, 현실의 경제 주체는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거래 상대방과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는 생성형 인공 지능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면서 정보 비대칭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에 근거하여 시장에 개입한다. 한편, 정보 비대칭 상황이나 사회적•정치적 견해 표명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에 대해서,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의 입장에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는 주장과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을 비판하며 정부의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주제] 정보 비대칭 상황이 야기하는 문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 여부에 대한 논쟁

10.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해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을, 완전경쟁시장 모델을 상정하는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론을 결부하여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정보 비대칭 상황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며,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정보 비대칭 상황을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기준의 문제점을 규명하고 있지 않다. ⑤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종합하지 않으며,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하고 있지 않다.

11.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2문단에서 생성형 인공 지능이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정보의 진위나 의도, 편향 등의 여부를 알기 어려운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온라인에 유통되는 허위 광고는 그 의도가 이용자에 의해 쉽게 파악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경제 주체는 정보 획득을 위한 투입 비용의 차이에 따라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래할 때 상대방보다 정보를 더 적게 가지는 경우 역선택 문제에 직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래에 관한 정보를 얻는 데 투입한 비용의 차이는 역선택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정부는 정보 비대칭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성분이나 효능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제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분 표시 강제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개입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정보 비대칭 상황은 경제 주체 사이에 취득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런데 완전경쟁시장의 경제 주체는 완전한 거래 정보를 갖는다고 가정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비판론은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근거를 갖춰 유해하거나 불법인 정보를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가 법에 근거해 불법 정보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는 것은 비판론이 제시한 공동 규제의 한 축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에 따라 플랫폼 시장에 자율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사회적•정치적 표현을 정부가 규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관점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4문단에 따르면 ㉡이 주장한 정부와 플랫폼 사업자의

공동 규제 방안에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권이라는 점을 감안해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3문단에 따르면 ㉠은 어떤 표현의 진위나 가치 여부는 다양한 의견 간의 경쟁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은 가치가 없는 정치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 표현을 기본권으로 보호하는 판결의 근거이다. 따라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한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 따르면 ㉡은 진실한 정보는 과소 공급되고 허위•왜곡 정보가 대량 공급되는 상황에서는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은 민주주의 의사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의 공동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하고, 미흡하면 사후에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유해한 정보를 미리 차단 조치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13.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5문단에 따르면, ⓑ에 대해 헌법 재판소는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플랫폼 B가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론에 따라 플랫폼 B는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 따르면 ⓐ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며,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자와 플랫폼 사업자는 아직 ⓐ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② 2문단에 따르면 ⓐ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생성물 표시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이며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에게도 그와 같은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기>에서 '갑'은 광고성 정보를 제작하여 게시한 정보 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로는 정보 제공자인 '갑'을 ⓐ로 제재하지 못한다. ③ '을'이 작성한 글에서 ○○방식 채택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사회적•정치적 표현에 대해 법률에 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5문단의 사례에 따르면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은 실명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를 제재하는 법률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헌법 재판소 다수 의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을'이 게시자 이름을 서로 다르게 하여 여러 글을 게시한 것이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면, 이는 4문단에서 비판론이 제시한 상황, 즉 정책 담당자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시민의 진정한 의

견으로 오인하여 민주주의 의사 결정이 왜곡된 사례로 볼 수 있다. 5문단에서 ⓑ에 대한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은 비판론과 같은 취지라고 했으므로 이는 헌법 재판소 소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14~17] 독서

[14~17] 과학 · 기술, '라플라스 식의 원리와 적용 사례'

지문해설 : 이 글은 구형 액체 방울에서 나타나는 표면 장력과 압력의 관계를 라플라스 식을 통해 설명하고, 이 원리가 여러 현상에 적용되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이러한 원리는 폐포를 둘러싼 액체층의 표면 장력이 폐포를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현상, 크기가 다른 두 기포가 합쳐지는 현상, 잉크젯 프린터에서 잉크 방울이 형성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주제] 표면 장력과 압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라플라스 식의 원리 및 다양한 적용 사례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4문단에 따르면, 잉크젯 프린터는 분사 장치의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며, 이때 분사된 잉크가 공기 중에서 방울의 형태가 되어 종이에 도달한다. 즉 노즐은 잉크를 분사하는 장치로 제시되어 있을 뿐, 작은 잉크 방울을 합쳐 큰 잉크 방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액체 분자 간의 인력으로 발생하는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라고 하였다. ② 1문단에서 구형은 동일한 부피에서 표면적이 최소인 형태라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폐포에는 그 내부의 압력과 인체 외부 공기의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드나든다고 하였고, 이는 공기가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층의 표면 장력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된 계면 활성제가 분비되어 액체층의 표면 장력을 낮춰 폐포의 확장이 쉬워진다고 하였다. 계면 활성제의 구성 성분인 지질은 폐포를 수축하게 하는 압력을 약화하는 물질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이다.

15. 세부 내용 추론

정답해설 : ㉠은 처음의 기포들보다 반지름이 큰 기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나타낸다. 1문단에서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

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진 기포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처음의 큰 기포보다 작아진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라플라스 식에 따르면 액체 방울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는 구형의 액체 방울에서 표면 장력에 정비례하고 액체 방울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고 하였다. ㉠의 두 기포는 구성 물질이 같으므로 표면 장력은 같고, 같은 환경에서 접해 있는 기포이므로 외부 압력도 동일한 조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지름이 작은 기포일수록 내부 압력이 더 높다. 2문단에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기포 안의 공기는 작은 기포에서 큰 기포 쪽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물방울, 비눗방울, 기포 등이 구의 형태를 취하는 것은 표면 장력의 작용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큰 기포에도 표면 장력이 작용한다. ③ 3문단에서 크기가 서로 다르고 구성 물질은 같은 두 기포가 접하여 하나로 합쳐질 때 한쪽 기포에서 다른 쪽 기포로 공기가 이동한다고 하였다. 또한 2문단에서 공기는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으므로 두 기포 내부의 압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1문단에서 액체 방울에서 방울의 외부 압력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의 합이 내부 압력과 균형을 이룰 때 방울이 그 크기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는 기포가 구형의 크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포의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과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포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때 내부와 외부의 압력 차이는 표면 장력으로 인한 압력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5문단에서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고, 잉크의 표면 장력, 잉크의 밀도, 노즐의 지름, 이 세 값의 곱이 클수록 작다고 하였다. 파란색 잉크의 점도와 표면 장력은 유지한 상태에서 밀도를 두 배로 높이고 노즐의 지름을 반으로 줄이면, 표면 장력, 밀도, 노즐 지름, 이 세 값의 곱은 변하지 않는다. 점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 세 값의 곱이 변하지 않으므로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 역시 변함이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6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오네소르게 수의 범위가 대략 0.1에서 1.0 사이이면 안정적인 인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잉크젯 프린터와 잉크를 구입한 직후, 시험 삼아 문서 한 장을 인쇄했을 때 빨간색 잉크와 파란색 잉크가 모두 안정적으로 출력되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구입 당시 두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는 대략 0.1에서 1.0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오네소르게 수는 잉크의 점도가 클수록 크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두 달이 지난 후에 빨간색 잉크가 구입했을 때보다 더 끈적끈적해졌다고 하였으므로, 빨간색 잉크의 점도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하자, 다시 인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첨가제는 지나치게 커진 점도와 오네소르게 수를 적정 범위로 낮추는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빨간색 잉크에 첨가제를 넣어 끈적거림의 정도를 조절한 시점에서, 파란색 잉크는 구입했을 때와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구입 당시 파란색 잉크가 안정적으로 출력되었고 두 달이 지난 후에도 차이가 없었다면, 파란색 잉크의 오네소르게 수가 인쇄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다. ⑤ 5문단에서 점도란 끈적거림의 정도를 말하며 액체가 끈적끈적할수록 점도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6문단에서는 점도가 커서 오네소르게 수가 적정 범위보다 크게 되면 잉크가 노즐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와 반대로 오네소르게 수가 적정 범위보다 작으면 수많은 위성 잉크 방울이 생겨 원치 않는 오염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파란색 잉크가 더 끈적거리는 성질로 변하였다면, 오네소르게 수가 커진 것이므로 위성 잉크 방울이 생성되기 어렵다.

17. 단어 사용의 적절성 파악

정답해설 : '발생하는'은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다.'라는 뜻이다. '올라오는'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다.'를 의미하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표현할'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다.'라는 뜻이다. '나타낼'도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 그림, 음악 따위로 드러내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③ '구성된'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이 모여 일정한 전체가 짜여 이루어지다.'라는 뜻이다. '이루어진'은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가 모여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④ '도달한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라는 뜻이다. '다다른다'는 '목적한 곳에 이르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⑤ '조절함으로써'는 '균형이 맞게 바로잡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 나가다.'라는 뜻이다. '맞춤으로써'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문맥상 바꿔 쓰기에 적절하다.

[18~21] 문학

[18~21] 현대 소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지문해설 : 이 작품은 평화롭던 농촌 사람들의 삶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과정을 통해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주인공 '삼바우'가 모는 배로만 외지를 오갈 수 있는 외딴 농촌 마을이다. 주민들은 가난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강 밖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마을 청년들이 참혹한 전쟁터로 내몰리게 되자, 마을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삼바우'는 마을과 외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뱃사공으로 자부심을 지닌 인물이다. 하지만 자신이 데려온 외지 사람들로 인해 마을 청년이 전쟁터로 나가게 되고, 이후 그들의 불행한 소식까지 전하게 되자 자기 일에 회의를 느낀다. 결국 그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외부인들을 자기 배에 태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근원을 제거하지는 못하는 소극적 저항에 그친다는 점에서 삼바우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겪는 전쟁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한다.

[주제]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성에 대한 폭로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면 서기가 틀림없는 양복쟁이'가 다녀간 지 '사흘 후' '동식이와 수만이'에게 나온 '영장' 때문에 이들이 '마을을 떠'난 것이지, 동식이가 마을을 떠나고 난 후 영장이 나온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앞부분에 '천달이뿐 아니라, 두칠이, 용팔이한테서도 떠나간 이후로 전혀 소식이 없었다.'라고 했다. 따라서 마을을 떠난 용팔이에게서 한 번도 소식이 오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모량댁은 방 안에 피를 토해 쓰러지면서도 마을을 떠난 후 소식조차 없던 두칠이를 목메어 불렀다고 했다. 따라서 모량댁이 두칠이를 만나지 못한 채 슬퍼하며 세상을 떠났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양복쟁이 하나가 마을에 들어와 아무개 아무개네 집을 물어 그 집의 청년들에게 전한 것은 영장이었다. 그러므로 마을에 온 양복쟁이가 집을 물어 가며 젊은이를 찾아다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갑분이는 모량댁도 죽고 두칠이도 없는 처지에 놓인 두칠이의 어린 두 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가슴 아파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갑분이가 두칠이 동생들의 불행한 처지에 매우 가슴 아파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9.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삼바우는 '함박눈이 마을을 덮'은 어느 날, '총을 멘 순경 한 사람과 면 서기가 틀림없는 양복쟁이'가 나타나자 '지난봄'의 일을 떠올리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때, '지난봄'에도 두 사람이 다녀간 뒤 마을 청년들에게 영장이 나왔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함박눈이 마을을 덮었던 그 겨울'과 '지난봄'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떠나는 마을의 위기가 외부에서 비롯된 시간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중심인물인 삼바우는 '지난봄'에 외부 사람들을 배에 태워 마을로 들어오게 했고, 그 일로 인해 마을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다. 삼바우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라고 했으므로, '지난봄'은 삼바우의 내적 갈등이 유발되었던 시간이지 해소되는 시간이 아니다. ③ 삼바우는 강가에 순경과 양복쟁이가 보이자, 그들이 마을 청년을 데리고 갈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자신의 배에 태우지

않으려고 '강 길'을 끊어 버리려고 한다. 이는 그들에 대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므로, '강 길'은 적대적 인물에 대한 반감이 해소되는 공간이 아니다. ④ 삼바우가 '강 길을 끊'는 것은 외지 사람들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나룻배와 마찬가지로 중심인물인 삼바우의 능동성이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삼바우의 행위는 마을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내부인의 노력이므로, 마을의 위기가 외부인의 노력으로 해결된다는 진술도 적절하지 않다. ⑤ '지난봄'에 삼바우는 순경과 양복쟁이를 나룻배에 태워 '강 길'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따라서 '지난봄'에 적대적 인물에 의해 '강 길'이 끊어져 인물 간 갈등이 심화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0.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삼바우는 강가에 나타난 두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이 또 마을 청년들을 데려갈 것이라 여긴다. '안 돼!'라는 그들이 마을 청년을 데려가도록 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고, '주먹을 불끈 쥐'는 동작은 그들과 맞서려는 삼바우의 강한 의지가 내포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는 멀리서 상대를 인지한 '분노'의 반응이라면, 어금니가 떨리는 것은 상대가 '또렷하게' 보이자 나타난 두려움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상대가 '또렷하게' 보인 것의 심리적 원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삼바우의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은 그가 '하는 수 없다는 생각', 즉 자기에게는 두 사람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힘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 것이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은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절망이 표현된 것이고,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든 것은 이 절망감에서 벗어날 묘책이 갑자기 떠오른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뒤통수를 갈기'는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이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돈 것의 심리적 원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자신이 한 '희한한 생각'이 매우 절묘한 것이라 판단한 기쁨을 드러낸 행위로, 이 행위가 '희한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신체적 반응을 보여 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의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는 강가에 나타난 순경과 양복쟁이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삼바우 내면의 목소리이고, '온몸의 피가 ~ 부들부들 떨렸다.'는 상대에 대한 삼바우의 분노가 드러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에는 상대에 대한 삼바우의 반감과 분노가 나타날 뿐 호기심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을 통해 삼바우가 처한 복합적 상황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이마에 손을 얹고~트림을 했다.'는 밭모퉁이에서 걸어오는 상대를 바라보는 삼바우의 행위를 묘사한 것이고, '혹시 우리 용팔이~아니가?'는 상대를 용팔이로 인식하는 삼바우 내면의 목소리를 진술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삼바우가 자식인 용팔이에 대한 유대감을 지니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② ㉡의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강?'은 상대 인물의 정체를 추측하고 있는 삼바우 내면의 목소리를 나타낸 것이고, '가까워지는데'는 상대 인물과 삼바우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삼바우의 공간 감각을 느낄 수 있다. ④ ㉣은 상대를 자기 배에 태우지 않았다는 삼바우의 자부심을 나타낸 내면의 목소리와 행위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자신의 행위를 의기양양해 하는 삼바우의 심리를 느낄 수 있다. ⑤ ㉤의 '흥! 안 되지 안 돼!.'는 삼바우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확신하는 내면의 목소리이고, '오스스' 떠는 것은 자신이 한 행위가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한 삼바우의 불안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삼바우가 자신이 한 행위에 확신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불안해하는 복합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이해할 것이다.

[22~27] 문학

[22~27] 갈래 복합 - (가) 김명인, '그 나무' / (나) 김기택, '나무' / (다) 정지용, '노인과 꽃'

지문해설 : (가)는 병들고 늙된 '그 나무'를 바라본 화자가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며, '그 나무'를 자기 삶에 대응하여 소망과 기대를 드러낸 작품이다. 화자는 봄을 맞아 한창 꽃을 피운 다른 나무들과 달리 꽃을 피우지 못한 늙된 '그 나무'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해 온 자신과 동일시한다. 그리고 동질감을 느낀 늙된 '그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고, 시간이 지나 '가난한 소지'를 지펴 올리기를 기대하는데, 이는 곧 나무와 동일시되는 자기 삶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얻고자 하는 화자의 기대와 소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 늙된 나무에 대한 연민과 동질감을 통해 드러나는 삶에 대한 희망과 기대

지문해설 : (나)는 가구에 드러난 나무의 무늬를 관찰하면서 이러한 무늬를 갖기까지 나무가 보낸 시간과 외부적 힘의 작용에 대한 화자의 통찰과 새로운 지각을 드러낸 작품이다. 화자는 나무의 무늬를 보며, 희고 밝은 목질 사이에 어둡고 딱딱한 나이테가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무가 뿌리를 통해 자양을 받아들이고 꽃과 잎으로 자유롭게 숨 쉬며 생장하는 과정과 혹독한 겨울 추위를 견뎌 내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무의 무늬가 형성되었음을 통찰하게 된다.

[주제] 나무의 무늬에 새겨진 생명의 역동성에 대한 통찰

지문해설 : (다)는 등이 굽고 숨이 차지만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와 존경의 마음이 드러난 작품이다. 글쓴이는 노인이 꽃을 정성껏 심고 가꾸는 행위가 노인의 깨끗하고 고고한 정신세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노인의 높은 정신적 경지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노인의 고결한 정신적 경지

22.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는 봄이 되어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멍울만 달고 있는 늦된 '그 나무'와 한 해의 꽃잎을 활짝 피웠다가 지운 여느 꽃나무의 상황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또 (나)에서는 '꽃과 잎으로 자유로이 드나들며 숨 쉬던' 나무들이 한창 생장하던 시기와 '추위의 난폭한 힘'이 '껍질을 뚫고 들어'와 나무가 얼었던 시기가 대비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청춘과 쇠년을 비롯해 주검과 꽃 등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가)~(다)에서는 중심 소재 또는 그와 관련한 상황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가), (나)에는 대상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이 일부 제시되어 있을 뿐 공간의 이동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또 (다)는 꽃나무를 가꾸는 노인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는 봄에서 겨울,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다)에는 계절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세 작품 모두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다)에서 화자나 글쓴이가 특정 대상과 말을 주고받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⑤ (가)에서 '그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고, '가난한 소지'를 지펴 올리기를 기대하는 것을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를 토대로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또 (나)에는 나무가 보냈던 시간에 대한 화자의 통찰, 상상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가상의 상황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현실에 대한 비판도 드러나 있지 않다. (다)에는 노인이 백 세가 된 이후에 대한 상황이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2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익어갔으리라'의 대상은 겨우내 얼었던 햇빛과 공기들로, 화자는 이러한 것들이 봄이 되면 푸르고 진한 빛을 가진 꽃과 잎, 독한 향기로 익어간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봄에 비로소 얻게 된 '독한 향기'를 부정적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리이리라'의 '자리'는 겨울 추위를 막아내다가 끝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갈라졌던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나무에 겨울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했던 시련과 고통이 갈라진 자국으로 남아 있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스며들었으리라'의 대상은 '추위의 난폭한 힘'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나무의 내부로 들어온 모진 기운인 추위가 나무의 수액 속에 깊이 배어들었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이르렀을까'의 주체는 잎과 꽃들로, 이것은 봄이 되었을 때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경험한 나무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에는 '잎과 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라는 시련을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나무의 무늬를 '지느러미처럼 빠르고 날렵한 무늬들'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무늬가 '흘러다니고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표현을 통해 화자가 나무의 무늬에서 물 속 생명체의 움직임 같은 운동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여름도 지치고 말면', 즉 여름 이후에 '저 나무도 가난한 소지를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라는 물음을 통해 늦된 '저 나무'라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전망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귀기울'임의 주체는 나무이고, 대상은 '나무 밖의 거대한 힘', 즉 나무에 가해진 '추위의 난폭한 힘'이다. 따라서 '난폭한 힘'과 '거대한 힘'은 모두 나무가 견뎌야 했던 시련을 의미하므로 '거대한 힘'을 '난폭한 힘'과 맞선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를 화자의 기원이 담긴 것으로 감상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 헤매고 다녔던' 화자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화자는 '그 나무'를 보고 자신의 방황을 떠올리고 있으며, '그 나무'는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1행에서 '대패로 깎아낸 자리마다 무늬가 보인다', 마지막 행에서 '(날렵한 무늬들은) 가구들 위를 흘러다니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나무의 무늬를 간직한 가구의 문양을 관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다른 벚나무들은 '며칠 만에 활짝' 꽃잎을 피웠다가 지웠지만,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채 멍울을 매달고 있는 늦된 그 나무를 보며 연민의 정서를 느끼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한편 (나)의 화자는 나무의 희고 밝은 목질과 딱딱한 나이테가 교차하는 나무의 문양을 보며 나무가 힘차고 자유롭게 생장하던 시기와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 내던 시기를 떠올리며 나무에 작용했던 힘들에 대한 지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에서 화자는 늦된 '그 나무'가 '이 봄 가기 전' '푸릇한 잎새'를 매달 수 있을지 묻는 형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또 (나)에서 화자는 겨우내 얼어 있던 나무가 봄이 되어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익어'간다고 하였으므로 '푸르고 진한 빛'은 겨울을 겪은 후 나무가 맞이한 긍정적 시간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5.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정답해설 : 5문단에서 글쓴이는 만일 노인 백 세 후에 노인이 죽고 '꽃이 난만할 때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겠'다고 하였다. 또 '꽃과 주검을 실로 슬퍼할 자는 청춘이요 노년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꽃이 난만하면 우리가 그 꽃을 즐기고 노인은 슬퍼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글쓴이는 '등이 곱으시고 숨이 차신' 노인이 꽃나무를 심고 가꾸시는 모습을 보고, 노인이 '도리어 꽃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노인이 공들여 꽃을 가꾸는 모습을 글쓴이가 아름답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글쓴이는 '나이 이순을 넘어 오히려 여색을 기르는 이도 있'는데 이는 '누추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노인이 쇠년에 오로지 꽃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하고 정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노인이 '봄비를 맞으'며 심은 꽃나무가 '촛불 켜듯' 고운 꽃봉오리를 맺고 이를 노인이 보게 될 것이므로, 노인이 꽃나무를 심고 가꾼 한 계절이 헛되이 지나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한 계절'을 보람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글쓴이는 노년의 덕을 지닌 노인은 '주검과 꽃을 슬퍼하'지 않으며, '꽃이 아름다움을 실로 볼 수 있'는 것은 노년의 경지에서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노년은 고고한 학과 같은 덕을 지닌 시기이며, 노인은 꽃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 '두 달거리'는 화자가 '산에서 내려'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닌 시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간은 화자와 동일시된 '그 나무'가 여느 꽃나무처럼 꽃을 피웠다 지우고 있지 못한 늦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을, '그 나무'에 '꽃불 성화'가 타오르기까지 앞으로 소요된다고 본 준비의 시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그 나무'가 아닌 여느 꽃나무들이 정상적으로 꽃을 '피웠다 지운' 시간으로, '그 나무'가 꽃을 피웠다가 지우지 못하고 멈칫거리고 있는 지체의 시간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겨울이 오기 전 나무 속에 들어왔던 햇빛과 공기가 혹독한 추위로 인해 얼어 움직임이 멈추었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은 겨우내 얼었던 나무 속의 햇빛과 공기가 '독한 향기와 푸르고 진한 빛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므로, 겨우내 닫혀 있던 모든 틈과 통로들이 다시 열리는 생동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은 매년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꽃의 피고 지는 속성이 주기적으로 실현되는 반복의 시간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는 정상적으로 꽃을 '피웠다 지운' 여느 꽃나무들이 만든 것으로, 화자는 늦된 '그 나무'가 여느 꽃나무가 만들어 놓은 그늘에 가려진 것을 ⓐ 속에 숨어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또 ⓑ는 노인이 꽃나무를 심고 가꾸어 꽃을 피우는 공간에 해당하므로 '노인'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는 '늦된 나무'가 의도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느 꽃나무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다. 또 ⓑ를 통해 노인이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려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③ ⓐ는 '늦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늦된 나무'가 봄을 더디게 맞이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또 ⓑ가 노인이 매년 달라지려 하는 목적을 바탕으로 조성된 것이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는 여느 꽃나무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늦된 나무'가 꽃피우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있으나 꽃철을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에 피는 꽃은 노인의 여년과 해골을 장식하기에 화려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가 노인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전제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화자가 ⓐ에서 발견한 '늦된 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기는 하지만 ⓐ를, '늦된 나무'가 부끄러움을 자각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 노인이 꽃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고결하고 성숙한 정신적 경지에서 비롯된 행동일 뿐 자신의 남은 삶을 희생하기 위한 행위는 아니다. 그러므로 ⓑ는, 노인이 자신의 여생을 희생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 없다.

[28~31] 문학

[28~31] 고전 소설, '홍길동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적서 차별과 같은 사회의 제도적 결함, 탐관오리의 부패와 같은 권력층의 부정에 대한 비판 등 사회·정치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고전 소설이다. 이 작품은 당대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적서 차별 등의 신분적 불평등을 비롯한 모순을 안고 있는 사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가지고 율도국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소설로도 평가할 수 있다.

[주제] 불합리한 사회 제도에 저항하는 홍길동의 영웅적 활약

28.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은 길동이 도적들에게 자신이 절에 가서 모든 중을 결박시킬 계략을 설명하는 것이고, ㉡은 '절의 나무하던 놈'이 합천 군수에게 도적이 들이닥쳐서 재물을 훔쳐 간 사정을 고하는 것이다. 길동이 모든 승려를 일시에 결박하라고 호령하며 "내 본관에 들어가 이 연유를 고하고 각별히 엄벌하리라."라고 말하지만, 이는 길동이 승

려들을 결박하기 위해 위협하는 말이지, 실제로 그가 승려들을 본관에 고발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전에 들으니 이 절 뒤의 풍경이 거룩하다 하니, 너희와 더불어 종일 즐기고자 하니 하나도 빠지지 말고 일제히 모이라."에서 길동이 승려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② '가만히 소매로부터 모래를 내어 입에 넣어 씹더니, 모래 깨무는 소리에 승려들이 놀라 사죄하거늘'에서 길동이 모래를 깨무는 것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④, ⑤ '도적이 우마를 가지고 들이닥쳐 창고를 열고 재물을 훔쳐 가는 광경을 보니라.'에서 도적들이 절에 들이닥친 일과 재물을 실어 나른 일이 포함됨을 알 수 있다.

29. 배경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는 길동이 승려들을 결박하고 재물을 빼앗은 절이고, ⓑ는 율도국 왕이 거주하는 율도국의 도성이다. 길동이 수월 만에 칠십여 성을 항복을 받고 도성 아래까지 다가와 율도국 왕에게 격서(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를 전하니, 율도국 왕은 길동을 방자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즉 ⓑ는 문서로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에서 문서로 인해 외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는 도적들이 창고에서 재물을 훔쳐 가는 것으로 볼 때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이며, ⓑ도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 하니'를 통해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곳임을 알 수 있다. ② ⓐ는 외부로부터 도적들이 침입한 곳이고, ⓑ는 길동이 활빈당과 함께 쳐들어간 곳이다. ⓐ, ⓑ 모두 외부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④ 길동이 율도국을 공격해 ⓑ를 점령하려 하므로, ⓑ는 외부인이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길동은 ⓐ에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이지, ⓐ라는 공간 자체를 탈취하려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에서 ⓐ가 구성원 사이에 위계가 없는 곳이라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며, ⓑ는 왕과 신하 사이의 위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30.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길동은 도적들을 무사히 도망가게 하려고 관군을 속여 북쪽 소로로 보낸 것이지, 자신이 산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 관군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어 속인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길동이 안심할 수 있는 장소로 도적들과 재물을 안전하게 보내려 하는 것은 관군을 '속이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길동이 법당에 들어가 중의 장삼을 입고 송낙(예전에 여승이 주로 쓰던, 송라를 우산 모양으로 엮어 만든 모자)을 쓰고 높은 뫼에 올라 소리친 것은 승려의 차림으로 변장해 관군을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③ 길동이 도적들을 남쪽 대로로 보낸 후 "저 관군은 도적이 북으로 갔으니 북쪽 소로로 쫓아가 잡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군을 '속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⑤ 길동의 속임수에 관군이 넘어가 도적들이 무사히 수천 우마를 몰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을에 이른 것은 '속인 결과'로 볼 수 있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율도국 왕은 길동의 격서를 받은 후 길동을 '무명 소적'이라고 부르고 있고, 율도국의 '문무제신'은 길동과 대적했다가 패배할 것을 두려워하여 왕에게 성을 굳게 닫고 지킬 것을 권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길동이 율도국 왕에게는 '무명 소적'이지만 '문무제신'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율도국 내부에 길동이 왕이 되려 하는 욕망이 마땅하다고 인식하거나 그것이 확산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율도국이 살림이 넉넉하고 국세가 대국이나 다름이 없다'를 통해 율도국이 안정적인 나라임을 알 수 있다. 길동은 이러한 나라를 침략하여 왕이 되려는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② 길동이 율도국 정벌의 의사를 보이며 여러 군사들의 뜻을 묻자, 그들은 '평생 소원이로소이다.'라고 답하고 있는데, 이는 길동의 욕망이 활빈당이라는 공동체의 소원에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성탕'은 폭군인 걸왕을 물리치고 은나라를 세운, '무왕'은 폭군인 주왕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세운 임금이다. 길동은 율도국 왕에게 보낸 격서에서 자신이 율도국을 정벌하는 것이 성군이 폭군을 몰아낸 중국의 역사적 사례와 동격임을 부각하고 있다. ④ 길동이 자신에게 '항복'하지 않는 것이 '천명'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의 율도국 정벌이 하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32~34] 문학

[32~34] 고전시가 - (가)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 (나) 김수장, '시름을 꺼내 들어 ~' / (다) 이정보,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지문해설 : (가)는 고려 시대에 창작된 작자 미상의 속요로, 『악장가사』에 수록되어 전한다.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애정을 솔직하고 대담하게 노래하여, 당시 사람들의 진솔한 감정과 사랑의 정서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형식적인 특징으로 인해 시조의 기원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며,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언어의 활용, 비유와 상징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제] 남녀 간의 강렬한 사랑

(나)는 김수장이 지은 평시조로, 근심과 걱정을 떨쳐 버리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노

래하고 있다. 시름을 만질 수 있는 사물처럼 꺼내어 묶은 뒤 강물에 띄워 보낸다는 독특한 발상을 통해 시름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추상적인 감정을 마치 형체가 있는 사물인 것처럼 형상화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으며, 해학적인 상상력을 활용하여 시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주제] 시름을 떨쳐 버리고 싶은 바람

(다)는 이정보의 사설시조로, 임에 대한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하고자 하는 화자의 굳은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와 임이 각각 오리나무와 칡넝쿨로 변한다는 독특한 발상과 표현을 통해,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임과 헤어지지 않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드러낸다. 특히 현실을 초월하여 변신한다는 발상은 임을 향한 애정을 더욱 절실하게 부각하며,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임과의 사랑을 오랫동안 지속하려는 간절한 소망

3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얼음 위에 댓잎 자리'를 보아 얼어 죽을 만큼 춥더라도 임과 함께하는 '밤'이 '더디 새'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춥더라도 임과 함께 있는 상황에 만족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B]에서 화자는 '도화가 발'한 봄을 맞고도 '경경 고침상' 즉, 근심에 싸여 외로운 잠자리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봄을 맞고도 만족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A]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하고 싶은 공간을 '얼음 위에 댓잎 자리'를 본 상황으로 설정하고는 있지만, 이를 조건으로 삼아 그것이 갖춰지기를 기원하고 있지는 않다. ② [B]에서 화자는, '잠이 오'지 않아 '서창(창문)을 열어' 도화를 바라볼 뿐, 창문을 매개로 하여 자신의 속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③ [C]에서 화자는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으나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지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라고 반문하며 마음속에 생겨난 임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임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린 이유가 변함없는 사랑을 강요한 자신 때문이라는 자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C]에서 화자는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기대가 어긋나자 '어기신 이가 뉘러시니잇가'라며 홀로 남겨진 슬픔에 한탄하고 있을 뿐,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A]에서도 화자는 임과 함께 오랫동안 밤을 보내고 싶은 소망을 노래했을 뿐,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극복하고 소망을 이루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지는 않다.

3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리저리'는 '일정한 방향이 없이 이쪽저쪽으로.'라는 의미의 부사어로,

(나)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시름'이 화자와 분리된 채 '절로 삭'아 없어질 때까지 방향성 없이 '떠다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자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꺼내 들어 얽어 매고 둘러 묶어'는 '꺼내 들다', '얽어 매다', '둘러 묶다'라는 연결 어미로 이어줌으로써 화자의 행동을 연속적 과정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시적 공간인 '강물'의 이미지를 '푸른'이라는 색채 표현을 활용하여 시각화하고 있다. ③ 강물에 던져지는 '시름'의 무게감을 '풍덩'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다. ④ '시름'을 '강물에' '띄워 두면'이라는 상황을 가정한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시름이 화자와 분리된 상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도화는 시름없어 소춘풍'하지만, 화자는 근심에 싸이고 외로워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이러한 자연물과 인간이 대비되는 모습은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화자의 고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다)에서 화자의 상태를 '나비'를 감는 '납거미'에 빗대어 제시한 것은,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과 하나가 된 현재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 임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화자는 '임'과 '정'을 나누는 '밤'이 '더디'게 흐르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이는 임과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고 싶은 주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일정하게 흐르는 시간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반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에서 시적 대상인 '시름'은 형체가 없는 심적 상태로서 추상적인 것이지만, 이를 '강물'에 '떠다니'는 것으로 표현하여 마치 형체가 있는 사물인 것처럼 나타내고 있다. ③ (다)에서 화자는 자신이 '삼사월'의 '칡넝쿨'이 되고 싶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시적 대상인 '칡넝쿨'에 '삼사월'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덧붙여 만물이 소생하는 봄철의 왕성한 생명력으로 임과 결속되어 뻗어 나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나)에서 '시름'을 구체화함으로써 '자연히 이리저리 떠다니다 절로 삭'을 것이라고 나타낸 것과, (다)에서 '나'가 '칡'으로 변신하여 '임'과 계속 '감'겨 있고 싶다고 함으로써 화자와 임의 강한 결속과 애정을 표현한 것은, 모두 참신한 발상에서 비롯된 형상화 기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② 36. ③ 37. ② 38. ④ 39. ① 40. ⑤ 41. ④ 42. ③ 43. ⑤ 44. ⑤ 45. ②

[35~39] 언어

[35~36] 음운과 형태소

지문해설 : 이 글은 국어학에서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과 의미를 가지는 최소 단위인 '형태소'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들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실현되는지 설명하고 있다. 1문단에서는 음운과 변이음의 개념을 제시하며,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상보적 분포를 이룸을 파열음 'ㅂ, ㄷ, 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문단에서는 이형태의 개념을 제시하며,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의미의 차이를 만들지 않고,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며, 출현 환경이 겹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3문단에서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인 교체를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주제] 음운의 변이음과 형태소의 이형태, 형태소 교체의 양상

35. 음운의 이해, 형태소의 이해

정답해설 : 1문단에서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어의 파열음에서 성대의 울림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준다는 진술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서 '가구'의 두 'ㄱ'는 각각 첫음절의 'ㄱ'는 무성음 [k]로, 둘째 음절의 'ㄱ'는 유성음 [g]로 다르게 실현되지만, 국어의 파열음에서는 성대의 울림 여부가 의미 구별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k]와 [g]가 하나의 동일한 음운인 'ㄱ'로 인식된다고 하였다. ③ 1문단에서 한 음운의 변이음들은 출현 위치가 서로 겹치지 않는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하였다. ④ 2문단에서 한 형태소의 이형태들은 문법적 기능이 동일하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을 자동적 교체와 비자동적 교체로 나누고 있는 것을 통해, 교체는 하나의 형태소가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임을 알 수 있다.

36. 상보적 분포, 형태소의 이해

정답해설 : ㉡의 '더위'와 ㉢의 '거위'에서 'ㄷ'와 'ㄱ'는 두 단어의 의미를 구별해 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에 해당한다. 또한 ㉢의 '먹+는[멍는]'에서 '먹'의 소리가 [멍]으로 나타나는 것은, 자음 'ㄱ'이 비음 'ㄴ' 앞에 올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먹-'이 [멍]으로 자동적 교체를 겪은 것이다. 따라서 '먹'과 '멍'은 한 형태소의 이형태에 해당하며, 형태는 다르나 의미는 같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의 '후보'의 [ㅂ]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유성음 [b]로 실현된 것이고, ㉠의 '바지'의 [ㅂ]는 어두에서 무성음 [p]로 실현된 것이다. 그러나 ㉡의 '온도'의 [ㄷ]와 ㉢의 '인고'의 [ㄱ]는 모두, 비음 'ㄴ'과 모음 사이에서 각각 유성음 [d], [g]로 실현된 것이므로 이들까지 무성음이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의 '잡+아[자바], 잡+는[잠는], 잡+고[잡꼬]'에서 '잡'과 '잠'은 하나의 형태소 '잡'이 모음 앞과 비음 'ㄴ' 앞이라는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형태들, 즉 한 형태소의 이형태이다. 따라서 '잡'과 '잠'이 서로 다른 형태소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단는]의 '단'과 [든는]의 '든'은 모두, 자음 'ㄷ'이 비음 'ㄴ' 앞에 올 수 없

다는 제약으로 인해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그러나 [드러]의 '들'은, 국어에서 'ㄷ'과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다-'의 '듣-'이 모음 어미 '-어' 앞에서 '들-'로 교체되어 [드러]로 실현된 것이다. 이는 일어나는 동기를 설명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시된 세 사례가 모두 자동적 교체의 결과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의 [멍는]의 '멍'은 자음 'ㄱ'이 비음 'ㄴ' 앞에 올 수 없다는 제약으로 인해 반드시 실현되는 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반면 ㉠의 [추운]의 '추우'는 국어에서 'ㅂ'과 모음이 결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춥-'이 모음 어미 '-어' 앞에서 '추우-'로 교체된 것으로,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이다. 따라서 두 사례를 모두 비자동적 교체의 결과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37. 문장 성분별 특성, 시제와 동작상,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정답해설 : ㉡의 '아주 새 제품'에서 '아주'는 관형어 '새'를 꾸며 주는 부사어이다. 그러나 ㉢에는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가 쓰이지 않았다. 앞 절의 '봉사 활동에'는 서술어 '참여했지만'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지,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가 아니다. 뒤 절의 '곧장'도 서술어 '가 버렸다'를 꾸미는 부사어이지,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가 아니다. 따라서 관형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가 ㉡과 ㉢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의 '붉은'은 형용사 '붉다'의 어간 '붉-'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은'이 붙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고, ㉡의 '건실한'도 형용사 '건실하다'의 어간 '건실하-'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③ ㉢의 앞 절에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말하고 뒤 절에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 말할 때 쓰는 대등적 연결 어미인 '-지만'이, ㉣의 앞 절에는 '익어 가고'에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 '-고'가 각각 쓰여 겹문장을 나타내었다. ④ ㉠의 '물들고 있다'는 본용언 '물들다'와 보조 용언 '있다'가 보조적 연결 어미 '-고'로 결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었다. ㉣의 '익어 가고'도 본용언 '익다'와 보조 용언 '가다'가 보조적 연결 어미 '-어'로 결합하여 진행상을 나타내었다. ⑤ ㉠의 '노을빛으로'는 서술어 '물들고 있다'가, ㉡의 '고객에게'는 서술어 '제공한다'가, ㉢의 '봉사 활동에'는 서술어 '참여했지만'이, '집에'는 서술어 '가 버렸다'가, ㉣의 '마당에는'은 서술어 '가득했다'가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한다.

38. 중세 국어 자료 탐구

정답해설 : ㉢은 상대에게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아니라, 의문사 '엇던'이 쓰여 그 의문사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결 어미 '-ㄴ다'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판정 의문문)에 사용되었다고 본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서 보조사 '고'는 체언(대명사) '누' 뒤에 결합하여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② ㉠은 의문사 '누'가 쓰인 설명 의문문으로, 보조사 '고'가 의문사 '누'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설명 의문문)에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에서 종결 어미 '-녀'는 용언의 어간인 '아니ᄒᆞ-'에 결합하여 판정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⑤ ㉢은 주어로 2인칭 대명사인 '그듸'가 실현된 의문문이다. '사ᄅᆞ민다'를 통해 '사ᄅᆞ미-(=사ᄅᆞᆷ+이-)'에 종결 어미 '-ㄴ다'가 결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종결 어미 '-ㄴ다'가 2인칭 주어가 실현된 의문문에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9. 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정답해설 : '놀이마당'은 그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놀이'와 어근 '마당'으로, '놀이'는 다시 어근 '놀-'과 파생 접사 '-이'로 분석되므로 파생 후 합성(㉠)이 된 단어이다. 따라서 '놀이마당'은 ㉠에 해당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콩나물국'은 그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콩나물'과 어근 '국'으로, '콩나물'은 다시 어근 '콩'과 어근 '나물'로 분석되므로 합성 후 합성(㉤)이 된 단어이다. ③ '거짓말투성이'는 그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거짓말'과 파생 접사 '-투성이'로, '거짓말'은 다시 어근 '거짓'과 어근 '말'로 분석되므로 합성 후 파생(㉢)이 된 단어이다. ④ '헛소리꾼'은 그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헛소리'와 파생 접사 '-꾼'으로 분석되고, '헛소리'는 다시 파생 접사 '헛-'과 어근 '소리'로 분석되므로 파생 후 파생(㉡)이 된 단어이다. ⑤ '웃음꽃'은 그 의미에 따라 먼저 어근 '웃음'과 어근 '꽃'으로, '웃음'은 다시 어근 '웃-'과 파생 접사 '-음'으로 분석되므로 파생 후 합성(㉠)이 된 단어이다.

[40~45] 매체

40. 사회적 상호 작용

정답해설 : 진행자는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서 '정규 방송을 마칠 시간이라 세계 기상 통신망에 대한 내용은 온라인 방송에서 이어 갈까 하는데, 교수님 괜찮으실까요?'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방송의 시간적 제약을 고려하여 진행한 것은 맞지만, 전문가에게 정보를 요약해서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의 설명을 잠시 중단시키고 뒤이어 진행할 온라인 방송에서 마저 설명해 줄 것을 전문가에게 요청한 것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진행자는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흐르는 중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식 한 입'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청취자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② 전문가

는 '기상 항공기에 사람은 몇 명이나 탈 수 있나요?'라는 '민트초코'의 질문에 5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답변하며, '민트초코'가 질문하지 않은 기상 항공기의 비행 가능 시간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레윈존데가) 35km 상공까지 어떻게 올라가나요?'라는 '새싹'의 질문에 대해서도, 구상의 기구에 매달려 올라간다는 답변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관측하는 '천리안2A호'에 대해서도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③ 전문가가 '구상의 기구에 매달려 올라갑니다.'라는 말과 함께 양손으로 둥근 모양을 만드는 동작을 취했는데, 진행자는 이에 대해 '지금 교수님께서 손으로 공 모양을 만드셨는데, 구상은 동그란 형태를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말하여 전문가의 손 모양을 볼 수 없는 라디오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진행자는 '많은 장비를 활용하니 수집되는 자료 양도 엄청나겠네요.'라는 '둥이맘'의 댓글과 '수집된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햇살가득'의 댓글 내용을 가지고 '관측 장비가 많으니 자료 양도 많을 터인데, 자료들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라는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 전문가에게 제시하고 있다.

41.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정답해설 : '별님달님'은 방송에서 소개하지 않은 해양 기상 관측 장비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이에 대한 정보를 탐색해 보려 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수정과'는 '기상 박물관에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는 경험 등을 언급하며 방송을 들은 소감을 밝히고 있으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방송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수정과'는 'AWS', '레윈존데' 같은 기상 관측 장비의 명칭이 어렵다고 했을 뿐 표현의 정확성에 대해 지적한 것은 아니다. ③ '별님달님'은 '지상뿐 아니라 상공에서도 관측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하였을 뿐, 향후 관측 장비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봄날'은 기상 관측 위성에도 종류가 있다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얻은 자신의 배경지식과 관련하여, 방송에 언급된 기상 관측 위성인 '천리안2A호'가 어떤 종류의 위성인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배경지식과 방송 내용의 차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정답해설 : (나)는 '관측 장비 한눈에 보기' 항목을 통해 방송에서 전문가가 소개한 관측 장비들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의 내용을 참고했을 때, (나)의 시각 자료 배열 기준은 기상 관측 장비들의 '관측 주기'가 아니라 '관측 위치'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라디오 매체의 제약으로 인해 다루지 못했던 '기상 항공기 소개 영상'을 (나)에서 '[참고] 기상 항공기 소개 동영상'이라는 항목에서 제시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다루기로 언급한 '세계 기상 통신망'에 대한 내용을, (나)에서 '2. 온라인 방송의 내용 - 세계 기상 통신망'이라는 항목을 통해 '1. 정규 방송의 내용'에 이어서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기상 관측 자료를 분석하는 슈퍼컴퓨터에 관해 (가)에서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 '분석 장비 - 슈퍼컴퓨터'라는 항목을 통해 소개하고 이와 함께 슈퍼컴퓨터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센터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제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전문가가 관측 장비의 특징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에서 '관측 장비 한눈에 보기'라는 항목에 제시된 설명에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담화 표현의 기능

정답해설 : '이'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말 엄청난 양의 자료들', 즉 많은 관측 장비들을 통해 수집된 자료들을 가리킨다. 슈퍼컴퓨터는 그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는 장비이지, '이'가 가리키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여 슈퍼컴퓨터를 가리키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려'는 어떤 행동을 할 의도나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에서는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장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데에 쓰이고 있다. ② '-지'는 어떤 사실을 긍정적으로 서술하거나 묻거나 명령하거나 제안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에서는 진행자가 전문가에게 '기상 정보를 수집하려면 관측부터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를 묻는 데에 쓰이고 있다. ③ '-(으)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에서는 '탑승 가능한 인원에 대해 물'은 주체인 청취자 '민트초코 님'을 높이는 데에 쓰이고 있다. ④ '터'는 어미 '-을' 뒤에 쓰여 '예정'이나 '추측', '의지'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 ⓓ에서는 관측 장비가 많으므로 자료의 양도 많으리라고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고 있다.

44. 뉴미디어의 특성

정답해설 : ㉤에서 '고은'은 자신이 '이진'으로부터 인쇄물의 형태로 받았던, 우리나라의 세계 기록 유산에 관한 자료를 회의 참석자 모두에게 파일로 전송해 달라고 '이진'에게 요청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에서 '은찬'은 모두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하고 있을 뿐 모두에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해 줄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다. ② ㉡에서 '대훈'은 '귓속말' 기능을 활용하여 지난 회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을 보내 준 '은찬'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을 뿐 회의의 진행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에서 '대훈'은 세계 기록 유산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유네스코 누리집의 화면 자체를 모두에게 공유하고 있다. 유네스코 누리집 주소를 채팅으로 전달한 것은 아니다. ④ '대훈'은 독서실에 있어 음성 언어로 의견을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에게 의견을 묻는 '은찬'에게 몸짓을 통해 이미 채팅창에 자신의 의견을 남겨 놓았음을 표현하고 있다. 몸짓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5.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정답해설 : (가)에서 '기록 유산이 쉽게 훼손될 수 있다는 내용이 영상에 드러나면 좋겠어.'라고 말한 '고은'의 의견을 반영하여, (나)의 [2]에서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되기 쉬운 기록 유산'이라는 자막과 함께 비를 맞으며 훼손되고 있는 고서의 모습을 담은 장면을 구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 유산의 역사적 의의를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기록 유산은 인류의 지혜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네. 이 내용을 보여 주자.'라고 말한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나)의 [1]에서 여러 시대의 인물이 손을 잡은 장면을 구성했다. ③ (가)에서 '기준이 여러 개면 주요 기준을 강조해서 보여 주는 게 좋겠어.'라고 말한 '이진'의 의견을 반영해, (나)의 [3]에서 주요 기준이 적힌 원을 보조 기준이 적힌 원보다 크게 제시한 장면을 구성했다. ④ (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기록 유산을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네. 아시아에서 제일 많대. 이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작하자.'라고 말한 '은찬'의 의견을 반영해, (나)의 [4]에서 순위가 적힌 시상대 위에 대한민국이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을 구성했다. ⑤ (가)에서 '그렇게 하면서(자막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면서) 영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도록 편집하면 좋겠어.'라고 말한 '고은'의 의견을 반영해, (나)의 [5]에서 영화의 끝맺음자막처럼 자막이 올라가며 영상이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장면을 구성했다.